

#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에 대한 진화론적 개념분석

조혜경<sup>1</sup>, 송미순<sup>2\*</sup>

<sup>1</sup>초당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공주여자고등학교

##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of Korean Cancer Survivors' Happiness

Cho HyeKyung<sup>1</sup>, Song MiSoon<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sup>2</sup>Gongju Girls High School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암 생존자의 삶에서 경험하는 행복감을 진화론적 개념분석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0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11개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암 생존자의 행복감에서 나타나는 속성은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주관적 경험, 삶의 만족감과 안녕감을 위한 긍정적 마음, 작은 것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닫게 되는 삶의 의미, 타인을 이해하고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한 관계형성이었다. 선행요인으로는 삶의 위기를 수용하고 현실에 대처하며 자기성찰과 환경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결과요인은 내면의 힘이 증가하고,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자기실현을 이루게 된다. 본 연구는 한국 암 생존자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계적 사정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으며, 다학제적 융합프로그램을 통한 암 생존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행복, 행복감, 암생존자, 암환자. 진화론적 개념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concept of happiness that would be experienced in life of Korean cancer survivors. The concepts of happiness were analyzed using the Rogers'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method for 11 papers satisfying the selection criteria, among domestic journals published from January 2000 to September 2017.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that attributes of happiness were subjective experience, positive mind, meaning of life and formation of relationship. Antecedents were to accept-risk-of-life, cope-with-the-reality, implement-self-reflection and environmental-support. As a result of the concept, cancer survivors' inner strength increased, they became feeling love and pursuing new lives, and felt happiness through self-realization. This study is valuable to suggest a basic framework for the stepwise assessment that can improve the happiness of Korean cancer survivors and cancer survivors should be managed through multidisciplinary convergence programs.

**Key Words** : Happiness, Well being, Cancer survivors, Cancer patient,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암환자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죽음이었으나, 이제는 진단과 치료기술의 향상으로 국내 암 환자의 70.7%는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암생존자라는 호칭이 새로 생겨날 만큼 암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오랫동안 삶을 영위하고 있는 암환자에 대해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재할 및 사회적 정신적 안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 이는 질병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질병 이후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고

\*Corresponding Author : Song MiSoon(trsong@hanmail.net)

Received June 18,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Revised August 1, 2018

Published August 28, 2018

자 하는 바람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암 생존자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행복에 대한 개념은 신화에서부터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진화되어 왔다. 신화에서 나타나는 행복은 천국에서의 삶이었고, 소크라테스는 자기성찰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성취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목표를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삶으로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육체적 고통이나 문제가 없는 쾌락이라고 정의하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 현대에 이르러 물질적 풍요는 행복을 개량화하고 서열화하면서 물질적 만족을 행복으로 보았으며,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에 따라 만족감이 성취된 심리상태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행복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1960년대에 사회학자들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행복과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개인에 따라 경험되는 행복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4]. 또한 학자들마다 행복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Bradburn (1969)은 개인이 오랫동안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고[5], Diener (1984)는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 특성인 외적가치와 인지적, 정서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6]. Veenhoven (1991)은 행복을 생활만족, 욕구충족, 기쁨수준을 전반적인 개념으로 구분하였고 직무만족, 자기존중감, 통제신념을 세부적인 개념으로 구분하였다[7]. Lyubomirsky와 Lepper (1999)는 행복을 소득이나 생활수준, 가족관계, 건강, 직업에 대한 만족과 같은 외적인 조건과 더불어 내적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8]. 이와 같이 추상적인 행복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들이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등으로 측정되고 있다. Bradburn (1969)은 긍정정서의 합에서 부정정서의 합을 뺀 점수를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라고 하였고, Diener (1984)[6]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하였는데 삶의 만족은 인지적 요소라고 하였고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정서적 요소라고 하였다. Lyubomirsky와 Lepper (1999)는 스스로 행복을 정의하게 하여 이를 주관적 행복감이라고 하였다[8]. 행복이 객관적 평가에서 주관적 평가의 개념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암생존자의 질병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복감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암생존자는 질병치료과정에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며 일상의 행복을 찾으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9]. 행복은 삶의 시작과 근원에서부터 누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암생존자의 삶에 활력을 높이며 면역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고 신체 증상이나 통증을 덜 느끼게하기도 한다[10]. 이와 같이 행복이 심리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전인적 간호 제공을 위해 암생존자의 행복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행복감은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암생존자들이 장기화된 질병과정 동안 겪어야 하는 삶의 변화와 적응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복감을 찾아 분석하는 것은 암생존자들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할 수 있는 간호제공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Rodgers의 진화론적 개념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간호학을 포함한 사회학, 심리학, 인문학 등의 통합적 문헌 고찰을 통한 결과의 산출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암생존자의 팀 접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odgers의 진화론적 개념분석은 개념과 세계와의 상호연결성, 변화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으며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행복감이 개인이 속한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암생존자가 되어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암과 함께 살아가는 암생존자의 삶에서 경험하는 행복감에 대한 개념 분석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암생존자의 행복감을 확인하고 사회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에 대하여 속성을 파악하고,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 암생존자에 대한 속성을 파악한다.
- 2) 한국 암생존자에 대한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암생존자의 행복감은 암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회복되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된 개념의 속성과 관련 없는 속성을 구분해서 개념의 구조를 보는 Walker & Avant 개념분석보다는 귀납적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발전되어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Rodgers의 진화론적 개념분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Rodgers의 진화론적 개념분석방법으로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에 대한 다학제적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행복감의 속성과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 행복감이 영향을 주는 결과 요인을 파악하고 암생존자의 행복감을 표현하는 대리용어들을 확인함으로써 개념을 맥락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암 발생률과 생존율의 증가로 암 유병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국민 31명당 1명이 암환자였으며,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10명당 1명이 암유병자이었다(<https://www.cancer.go.kr/lay1/S1T654C655/contents.do>). 그러므로 국내학술 DB를 중심으로 암생존자의 증가를 보이는 2000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여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11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하였다. 논문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영어 또는 한글로 저술된 논문으로 연구대상자는 한국인이며 성인으로 암 진단을 받고 생존해 있는 대상으로 하였다. 제외기준은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각종보고서, 학술대회 발표논문, 학위논문 그리고 성인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소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제외되었다.

### 2.3 연구자 준비

연구자들은 박사학위 과정에서 개념분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 간호이론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암생존자의 행복에 대한 개념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연구자들의 오랜 임상경험과 호스피스 간호를 통해서 얻은 암환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암생존자들에

대한 문헌들을 검색하여 반복하여 읽었으며, 개념분석방법에 익숙해지기 위해 Rodgers의 진화론적 개념분석 방법과 관련된 문헌들을 읽고, 본 연구와는 다른 개념으로 분석해보는 훈련 과정을 거쳤다. 그 후 다년간 간호이론을 교육하고 개념분석 연구 논문을 다수 게재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개념분석 과정을 진행하였다.

### 2.4 개념분석 과정

Rodgers (2000)의 진화론적 방법에 따라 개념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 과정들은 개념이 분명해 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순환하며 분석하였고 연구자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의견 일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하였으며,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 1) 관심개념과 관련된 표현을 확인한다.
- 2) 자료 수집을 위한 영역(setting and sample)을 확인한다.
- 3) 자료수집: 개념의 속성과 맥락적 근거(학제적, 사회문화적, 시간적 변화가 포함됨)를 규명한다.
- 4) 개념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다.
- 5) 개념의 모델 사례를 제시한다.
- 6) 개념발달과 실무적용을 위한 가설과 함의를 규명한다.

#### 2.4.1 관심개념과 관련된 표현 확인

##### · 암생존자

암으로 진단받은 이후 살아남은 자를 명명하는 호칭을 국내에서는 암생존자, 암 생존력, 암유병자, 암경험자, 암 극복자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암생존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암생존자와 암 생존력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11-12]. 2000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암생존자/암 생존력으로 국내문헌을 고찰한 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 145건/1건,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http://www.ndsl.kr/index.do>) 73건/1건,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 60건/0건, Dbpia(<http://www.dbpia.co.kr/>) 10건/0건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암생존자'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 · 행복감

암생존자의 행복감이라는 개념의 속성과 맥락적 근거

를 확인하기 위해 행복의 사전적 의미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국적 표현들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문헌검색 사이트에서 자료를 검색하였다. 국내에서는 행복, 행복감, 웰빙, 안녕감, 만족감 등이 검색되었다. 성보훈과 윤선아[13]는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삶의 질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주관적 안녕감을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녕감으로 설명하였다[14][15].

2.4.2 자료 수집을 위한 영역(setting and sample) 확인

• 암생존자

암생존자에 대한 범위를 영국의 Macmillan Cancer support에서는 암 진단 후 생존해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말기암환자는 제외하였고, 미국의 NCCS (National Coalition of Cancer Survivorship)에서는 암진단 후 생존해 있는 모든 사람과 이들의 가족, 친구, 돌봄 제공자들도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암생존자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암 치료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암환자를 지칭하고 있었다[16].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암 진단 이후 살아가고 있는 생존자들의 행복감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암을 진단받은 시기부터 남은 일생에 걸쳐있는 모든 사람을 암생존자로 정의하였다. ‘암생존자’를 검색어로 하여 국내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문헌을 검색하였다.

• 행복감

행복(Happiness)의 사전적 정의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이며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는 것’이다(https://ko.wikipedia.org/wiki). 이와 같이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이고 심리정서적인 생각이나 느낌이기에 때문에 ‘주관적’, ‘심리적’인 행복감을 유사 표현들과 결합하여 문헌을 검색하였다. 즉, 유사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복, 행복감, 해피니스, 안녕감, 삶의 질, 만족감에 ‘심리적’, ‘주관적’인 용어를 결합하여 국내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문헌을 검색하였다.

2.4.3 자료수집

개념의 속성과 맥락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국 암생존

자의 행복에 대한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헌들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속성과 맥락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행복감이란 무엇인가?”, “행복감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관련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암환자’ 혹은 ‘암생존자’와 결합하여 행복과 유사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복, 행복감, 해피니스,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만족감을 검색한 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 riss4u.co.kr) 2745건, 한국학술정보원(http://kiss.kstudy.com) 2647건, Dbpia(http://www.dbpia.co.kr/) 544건,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http://scholar.ndsl.kr) 538건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6,474편의 논문 중 행복감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논문과 학위논문, 각종 보고서,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을 제외시켜 47편의 논문을 추출하였고, 다시 초록을 보면서 연구 주제와 관련이 없는 논문을 제외하고 11편의 논문을 추출하였다. 이후 참고문헌 목록을 검색하는 등의 수기방법으로 9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20편의 논문 전문을 여러 번 정독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간 신중한 논의로 선정 목적에 합당하면서 다양한 학문분야의 개념이 반영되도록 고려한 결과 총 11편의 논문이 도출되어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Fig. 1. 암환자가 연구대상자이기 때문에 주로 간호학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많았는데 분석에 사용된 11편의 논문 중에서는 7편이 간호학에서 연구한 것이었고 나머지 4편은 스트레스, 철학, 레크레이션, 여성학에서 연구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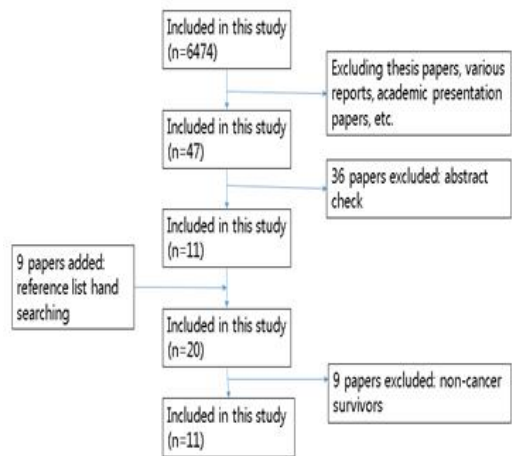


Fig. 1. Flow diagram of study selection

Table 1. Multidisciplinary Literature Review Matrix on Papers Related to Happiness of cancer survivors

No.	Domain	First author (year)	source	Research design	Participants (n/age)	Key findings
1	stress	Suh, Eunyoung E.(2008)	The Korean J of stress research Vol.6 No.4, 305-315	qualitative method -grounded theory	17 breast cancer patients(30-63years old)	-The overriding theme was "accepting and enduring the transient suffering with a lowered mind." -sub-themes were "clear one's mind of distraction and live unboundedly as water flows down," and "make up one's mind to accepting reality." -The findings are mediated by Korean cultural concepts such as "lowering one's mind" and "enduring life-suffering."
2	philosophy	Kim, Hak-Ju et. al(2011)	The J of Indian Philosophy Vol.33, 241-268	exploratory study	33 breast and gynecologic cancer survivors	-the highest score in "a sense of a purpose/mission for their life or a reason for being alive" -the mental health summary scores were lower than the physical health summary scores -benevolence, giving, and offering gratitude and repaying,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quality of life and social support concepts.
3	recreation	Won, Hyung-Joong, Lee, Young-Mi, Shin, Kyu-Lee (2012)	J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Vol.36 No.2, 90-103	qualitative method -phenomenological study	3 cancer patients	Leisure activities by physical activity will be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enjoy the rest of the cancer survivors' lives happily.
4	women's	NARUSWMA SAYO, Chung, Jae-Youn, Jeon, Justin Y.(2015)	J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29(2), 209-222	mixed method	five cancer survivors and his or her spouse	-more frequent communication between couple were observed toward end of the program compared with the beginning of the program. -Lastly, improvement in psychological happiness was observed toward the end of the program. -Couple seemed to enjoy physical affection through dance program and common experience which increased their quality of life.
5	nursing	Noh, Young-Hee (2003)	J of qualitative research vol.4 No.1, 7-25	qualitative method -Van Mannen	9 breast cancer patients	-7essential themes: 'Want to escape from reality', 'Chest becomes bareness', 'Having hope for uncertain future', 'Fill myself with only my ideas', 'Realize small meanings of life', 'Deepened family love', 'New relations formed tenaciously by disease scar'.
6	nursing	Lee, Sook-Hee et.al. (2004)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10 No.1,32-41	qualitative method -grounded theory	15 women with cervical cancer	The core category: "overcoming cancer", "admitting reality", "attempting health-care", "continuing health-care". -the central phenomena: "powerlessness" -The internal factors motivating women to overcome cancer: "denial of cancer" and "desire for life" -Strategies of overcoming cancer:"living as a cancer patient," "selective food eating," "steady exercising," "getting rid of stress," and "preparing for death". -The intervening conditions: "supportive system," "forms of life," and "burden on family," influenced overcoming cancer.
7	nursing	Park, Mi-Sung, Kim, Keum-Soon (2006)	J Korean Oncol Nurs Vol.8 No.2, 93-104	phenomenological analytic method suggested by Colaizzi.	6 cancer survivors' life experience after being discharged from the primary cancer treatment.	The six major theme included 'keeping his/her mind comfortable', 'going a head with new hope', 'accepting for his/her existing burden', 'maintaining a good health for a new life', 'improving the strength and relationship among the family member', and 'being faithful to his/her religion.
8	nursing	Yang, Jin-Hyang(2008)	J Korea Acad Nurs Vol.38 No.1,140-151	phenomenological analytic method suggested by Van Manen.	11 cancer patients over the 20 years old.	The essential themes that fit into the context of the 4 existential grounds of body, time, space and other people were: a body that cannot be restored, a body that endures and lives, waiting in uncertainty, a valued calculation for the living day, being in a world of invisible power, reestablishing relationships, and reflection on his or her life.
9	nursing	Kim, Young Ju(2011)	J Korea Acad Nurs Vol.41 No.2,214-224	qualitative method -grounded theory	8 breast cancer patients	-The causal condition: 'patient's response to cancer recurrence (acceptance/ despair)', 'previous experience with cancer treatment', 'patient's current physical condition', and 'treatment methods for recurrent cancer'. -Intervening conditions: 'a strong will to live', 'family support', 'moral support providers', and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found to provide patients with 'a strength to live'.
10	nursing	Park, Jung-Ae, Choi, Kyung Sook(2013)	Asian Oncol Nurs Vol.13No.3,163-173	microethnographic study	6 female patients	born again after going through an altered self-image -consists of 4phases: 'Confrontation of the cancer diagnosis', 'Fierce compliance', 'Leveling off', and 'Born again'.
11	nursing	Yun, Mira, Song, Misoon(2013)	Perspective in Nursing Science Vol10(1), 41-51	qualitative method -phenomenological study	25 breast cancer survivors	6 categories The themes were acceptance of the illness, active coping with reality, gaining strength through the support of surrounding people, struggling to overcome a negative mindset, self-reflection, and the pursuit of a meaningful new life.

### 2.4.4 개념의 특성에 관한 자료 분석

암생존자의 행복감 속성을 발견하기 위해 연구 목적에 맞게 추출된 문헌들을 가지고 한국인의 행복과 유사한 특성, 표현, 상황, 현상 등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요인들의 공통점을 분석하고 통합하면서 속성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하였다. Fig. 2. 개념분석을 위해서는 선정된 문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후 개념의 맥락, 유사 용어와 관련 용어, 선행요인, 속성, 사례, 결과에 초점을 두고 읽었다. 본 연구에서는 맥락적 근거를 규명하기 위해 속성의 선행요인과 결과가 나타나게 된 상황이나 사건, 현상은 어떤 것이었는지 문헌들을 다시 보면서 재확인하였다.

### 2.4.5 개념의 모델 사례 제시

귀납적으로 확인되는 모델사례는 개념의 선행요인과 속성, 결과를 맥락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암환자의 수기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 2.4.6 개념발달과 실무적용을 위한 함의규명

간호학의 지식 발달을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가설을 제시하고 함의를 규명하는 마지막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모형으로 제시하여 개념의 속성과 선행요인, 결과의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Fig. 2. 개념을 대체해서 사용하여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대체용어(surrogate terms)와 관련성은 있으나 속성은 같지 않아 의미가 다르게 표현되는 관련 개념(related terms)을 제시함으로써 개념의 함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3.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논문 11편을 분류한 결과, 학문 분야는 스트레스학 1편, 철학 1편, 레크레이션 1편, 여성학 1편, 간호학 7편이었다. 연구 설계는 질적연구 9편, 조사연구 1편, 혼합모형 연구 1편이었다. Table 1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의 속성, 선행요인, 결과는 Fig. 2와 같다.

Antecedents	Attributes	Conseque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pe with reality</li> <li>- concentration on real life</li> <li>- collection of disease information</li> <li>- self-encourageme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bjective experience</li> <li>- Composure</li> <li>■ Positive mind</li> <li>- life satisfaction</li> <li>- well-being</li> <li>■ Meaning of life</li> <li>- value for small affairs</li> <li>- Gratitude</li> <li>■ Formation of relationship</li> <li>- altruism(living together)</li> <li>- understanding other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ner strength increased</li> <li>■ Love</li> <li>■ Pursuing new life</li> <li>■ Self-realiz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cept risk of life</li> <li>- emptying mind</li> <li>- regarding as small merci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lf-reflection</li> <li>- life retrospect</li> <li>- change recognition for futur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nvironment support</li> <li>- family affection</li> <li>- interpersonal relationship</li> <li>- religion</li> </ul>		

Fig. 2. Conceptual model of cancer survivor's happiness

### 3.1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 속성

개념의 속성은 개념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준다고 하였다[17].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의 특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확인한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의 주요 속성은 주관적 경험(subjective experience), 긍정적 마음(positive mind), 삶의 의미(meaning of life), 관계형성(formation of relationship)이었다. Fig. 1

#### 3.1.1 주관적 경험

마음을 비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여 현실에 대처하는 삶의 위기를 수용하는 선행 요인들을 거쳐서 주관적 경험을 하게 된다. 마음의 여유를 느끼며 기도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마음의 평정(10)과 여가 활동이나 대인관계를 통해서 즐거움과 안정감, 편안함뿐만 아니라 살아 있다는 존재감(3,4,5,7)도 느끼는 주관적 경험을 하게 된다.

#### 3.1.2 긍정적 마음

견뎌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낙천적인 사고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3,6,7),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3,5).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살아있음에 더욱 감사하게 되고, 암도 자신의 친구처럼 생각하면서(1)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만족하게 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3).

### 3.1.3 삶의 의미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살아있다는 기쁨과 건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1,5), 건강할 때 알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된다. 맑은 공기와 햇빛,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등 소소하고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5,8,10),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며(11),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뀐다(8). 삶의 방식과 삶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서(3)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8). 또한 암생존자에게 자려는 삶의 의미를 주는 존재로서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9).

### 3.1.4 관계형성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타인을 위로하며(8,5,10) 봉사나 기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이타심을 가지게 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7). 또한 힘든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며(1)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

## 3.2 개념의 선행요인

선행요인(Antecedents)은 개념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18],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과 관련되어 이전에 발생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확인한 결과 암생존자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한 선행요인은 삶의 위기 수용, 현실 대처, 자기 성찰, 환경적 지지이었다.

### 3.2.1 현실에 대해

암 진단을 받은 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치료방법을 시도하며(5) 인터넷에서 암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동료 환우들로부터도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정보를 통해서 암에 대해 알게 되고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어 철저한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자기관리

를 위해 노력한다(6,7,10,11). 건강할 때 했던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11) 투병의지와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격려한다(5). 암 진단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의 질병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건강관리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 3.2.2 삶의 위기 수용

마음을 비우고 물 흐르는 대로 순응하며 자신에게 주어졌던 현실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면서(1,7,11) 아무 욕심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인다(7). 자기보다 힘든 환자와 비교해서 자신은 오히려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거나(9,11), 자신의 몸이 망가지지 않고 잘 지탱해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5,8). 삶에서 욕심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여 삶의 위기를 수용함으로써 행복한 삶으로 다가가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다.

### 3.2.3 자기성찰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생각하게 되는데 건강하지 못했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나뉘었던 자신의 성격을 반성하면서 후회도하지만(7,10)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었던 아픔이나 불행 등을 회고하며 자기 때문에 상처 받았을 가족이나 이웃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7). 이러한 과거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앞으로 암과 함께해야 하는 남아있는 미래에 대한 변화도 인식하게 된다(11).

### 3.2.4 환경적지지

암생존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나 배우자의 보살핌과 사랑, 신뢰는 암생존자의 버팀목이 된다. 특히 자식에 대한 강한 책임과 애착은 삶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할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목표를 갖게 한다(4,5,6,7,8,9,10,11). 형제와 친구 그리고 이웃들의 배려는 불편하게 받아들여져 거리를 두기도 하지만(5) 아픔을 겪은 환우와는 형제처럼 터놓는 사이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고통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3,5,7,10,11). 종교적으로 절대자에게 의지함으로써 현재의 고통이나 불안에서 벗어나 암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부여하며 내면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간다(6,10). 이처럼 가족애를 바탕으로 대인관계와 종교적인

믿음은 암생존자를 지지해주는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선행적 요인이 된다.

### 3.3 개념의 결과

본 연구에서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과 관련된 결과(consequences)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한국암생존자의 행복감의 결과로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가?”,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의 결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확인한 결과는 내면의 힘 증가, 사랑, 새로운 삶 추구, 자기실현이었다.

#### 3.3.1 내면의 힘 증가

성숙한 내면의 힘으로 암이라는 질병이 자신에게 던지는 의미를 깨닫게 되고, 넓고 여유 있게 삶을 받아들이며(7,10,11)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8,11). 이로 인해 내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며 내면의 힘이 증가한다.

#### 3.3.2 사랑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5) 가족에 대한 진한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많은 행복을 느끼게 된다(5,10). 또한 삶에 대한 만족감과 신체적·정신적 안녕감을 느끼며,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11).

#### 3.3.3 새로운 삶 추구

눈을 뜨면 새로운 아침을 맞게 되고, 모든 것이 새롭으며,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난 듯(3)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한다(7).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가치를 깨닫고 질병과 함께 하는 일상을 재구성하며(8)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8).

#### 3.3.4 자기실현

암생존자들은 배우지 못했던 공부를 시작하거나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7), 아픈 환자를 돕는 자원봉사나 해외 여행을 가는 등 건강할 때 하지 못했던 것을 마음껏 해보며(11)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실천함으로써 자기실현을 이룬다.

### 3.4 개념의 모델사례

2007년 어느 여름이었다. 아랫배에 뭉뚱한 혹이 잡혀 나름 고민을 한다고 병원을 옮겨서 검사를 했지만 같은 결과였기 때문에 복강경으로 난소에 혹을 제거하는 비교적 간단하게 여겨지는 수술을 했다. 수술이 끝나고 산부인과에서 조직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난소암 3기로 판정되었다. 그때 내 나이 마흔 일곱이었다.

마음속에서 원망이 일었다. 평생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암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형광등이 꺼진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졌고 깊고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 갔다.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병원에 있는데 같은 병동에 30대의 젊은 아가씨가 같은 병으로 입원하였다. 그 젊은 아가씨를 보면서 문득 마음에 위안이 드는 것이었다. ‘그래도 나는 결혼도 했고, 세상을 더 살았고, 나를 위해 애태우는 남편도 곁에 있지 않는가! 그래도 저 젊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동안 원망과 분노, 절망 등 슬프게 만들었던 감정들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 마음이 변하니 병원의 치료가 두려웠지만 새삼스럽게 용기가 솟아났다(삶의 위기 수용). 암수술과 항암치료가 끝나고는 살아야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암이라는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했다. 인터넷에서 암에 좋은 음식이나 식품, 또 생활 방법 등을 찾아서 실천했다. 작은 가게를 운영했었지만 몸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정리해야 했다. 그동안 몸을 아끼고 돌봐주고 사랑했어야 하는데 암에 걸리고 나서야 몸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집 주변의 광고산을 매일 강아지와 함께 한 두 시간씩 산책을 했다(현실대처). 이 습관은 처음 암에 걸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키고 있다. 그리고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배우려고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요가, 댄스 등 운동 프로그램들부터 하나씩 시작했다(자기실현). 예전 같으면 집이 조금만 어질러져 있어도 그 꼴을 못보고 당장 치우곤 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기로 했다. 지금은 그냥 허허 웃으면서 내일 자고 일어나서 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두게 된다. 또 암에 걸리기 전에는 모든 것에 욕심이 많았다. 돈 욕심, 일 욕심, 사람 욕심 등 욕심꾸러기였고, 그래서 화도 많이 내곤 했다. 화가 안 풀리면 집에 와서 남편에게 화풀이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올 뿐이다(자기성찰).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욕심 부리고 화내고 그랬을까 싶다



(긍정적 마음). 지금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 눈을 뜰 때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랍고, 감사하고, 감동스러울 따름이다. 이렇게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 있는 나의 존재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저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삶의 의미). 9년째 나는 암과 지내고 있는데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더 편해지고 삶은 언제나 행복하다(주관적 경험).

주위를 돌아보면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환경적지지). 내가 마음을 열 준비만 하면, 손을 내밀기만 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기꺼이 손을 잡아주었다(관계형성). 남편이 털어놓기를 암 진단받기 전에는 어떤 때는 내가 무서워서 집에도 못 들어올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 남편은 밖보다 집이 더 편하고 좋다고 말하는걸 보면 나도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사랑). 마음을 내려놓으니 세상살이가 이리도 편한 것을 암과 몇 년 지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내면의 힘 증가). 지금은 하루하루 웃으면서 즐겁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지낸다(새로운 삶 추구)[19].

### 3.5 가설 및 함의 규명

가설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Fig. 3 와 같이 개념도를 제시하였다. 개념을 대체해서 사용하여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대체용어(surrogate terms)와 관련성은 있으나 속성은 같지 않아 의미가 다르게 표현되는 관련 개념(related terms)을 제시함으로써 개념의 함의를 규명하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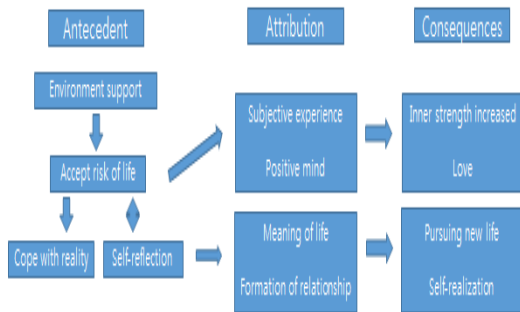


Fig. 3. Hypothetical construct model of Korean Cancer Survivor's Happiness

#### 3.5.1 가설제시

한국 암생존자는 환경적 지지를 받으며 삶의 위기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현실에 대처하고 자기성찰을 하게 된

다. 삶의 회고와 변화된 삶을 인식하는 자기성찰은 마음을 비우고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삶을 받아들이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인 삶의 위기 수용은 자신만이 느끼게 되는 주관적 경험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내면의 힘이 증가하고, 사랑까지도 느끼게 된다. 동시에 자기 성찰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타인을 이해하게 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관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자기실현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진화론적 개념분석을 통해 나타난 암생존자의 행복감은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수용함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얻는 주관적인 경험을 하고, 비관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행복감의 속성이 드러났다. 이것은 내면의 힘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고통을 극복하게 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자기성찰은 선행요인으로써 삶의 위기를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면서 성찰을 통해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주어진 삶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알게 되고 암생존자들과 함께 고통과 두려움을 함께 나누며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또 다른 속성이 확인되었다. 이 행복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3.5.2 개념의 대체용어

본 연구에서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과 관련된 대체용어(Surrogate term)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행복감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는 무엇인가?”, “행복감과 공통점이 있는 용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비슷하거나 같은 의미로서 용어를 대체하여도 의미에 변화가 없는 용어는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자아수용성(self acceptance),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 자율성(autonomy),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nment mastery), 삶의 목표(purpose in life), 개인의 성장(personal growth)과 관련이 있다[15].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위환경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삶의 목표와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

국 암생존자의 행복감 속성과 일치하고 있다. 한국 암생존자가 암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스스로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주관적 경험은 자아수용성과 자율성과 일치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관계 형성은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와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유사하다. 또한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자기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인 삶의 목표와 개인의 성장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심리적 안녕감은 인지적 정서적 상태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 대체용어라고 할 수 있다.

### 3.5.3 개념의 관련 개념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 관련개념(Related concept)은 관련성은 있으나 속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17]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이 관련 개념으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전체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과 평가로써[6][20] 만족감과 충만함 같은 정서적 반응을 포함한다.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이는 것은 삶을 보람 있게 만들어주는 긍정적 정서의 핵심이며 행복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21].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 속성 또한 마음의 평정을 찾는 주관적 경험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정서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으며 주관적 행복감의 긍정적 정서와 인지적 요소로써의 삶의 만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관적 안녕감은 인간의 쾌락에 기초한 행복에 가까우며[6] 불안과 같은 부정정서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은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 관련개념이라 할 수 있다.

## 4. 논의

행복이란 개인의 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암생존자에게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암을 극복하였거나 암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암생존자들의 경험 속에서 행복의 속성들을 Rodgers(2000) [18]의 진화론적 개념분석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다.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의 선행요인은 삶의 위기 수용, 현실대처, 자기성찰, 환경적 지지였으며, 속성은 주관적 경험, 긍정적 마음, 삶의 의미, 관계 형성이었고 결과는 내면의 힘 증가, 사랑, 새로운 삶 추구, 자기실현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특히 한국이라는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속성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개념분석에 사용된 11편의 논문 중에서 환경적 지지에 속하는 가족과 관련된 지지가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암생존자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자식은 삶의 위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힘을 주는 존재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애'로 나타났다. 가족들이 그림자처럼 손발이 되어주며 암생존자가 투병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은 가족을 삶의 기본 단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경자(2004)[22]의 연구에서도 한국인의 행복의 근원이 가족, 배우자, 자식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한국인의 행복관에 내재한 문화적 특성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형태로 보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으나[23] 한국 암생존자에게 가족은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버팀목이며 삶의 목표를 갖게 할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선행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은 환자의 버팀목(선행요인)이며 삶의 의미(속성)이자 사랑(결과)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가족애와 더불어 대인관계는 암진단을 받은 후 거리를 두거나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같은 아픔을 겪은 환우와는 서로 의지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이것은 자조집단을 통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질병 경험을 공유하며 남에게 털어놓지 못할 고민도 함께 나누며 서로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게 되는 자조집단이 심리사회적으로 매우 효과가 있으며 생존율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24]. 그러므로 자조집단 형성을 위한 간호사의 중재역할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행복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교, 불교, 노장사상은[25]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현실 순응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데 불행을 적극

적으로 극복하기보다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며 순응하고 사는 것이 한국인의 전통적인 행복관이라고 하였다 [1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마음을 비우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삶의 위기 수용’과 기도로 마음의 평정을 찾는 ‘주관적 경험’ 그리고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긍정적 마음’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현실 순응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장사상에서는 모든 인위적인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이 만물과 일체가 되도록 하는 무위(無爲)를 주장하고 있으며[25] 동양사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대상과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으로 자신을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스스로 수양(修養)하는 문화가 발달하였다[25].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 암생존자는 지금 현재 상태를 다행으로 여기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으로 한국 암생존자의 행복감에 대한 선행요인과 속성에서 ‘삶의 위기 수용’과 ‘주관적 경험’ 그리고 ‘긍정적 마음’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동양 사상이 반영된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은 현경자(2004)[22]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한국인은 마음의 편안함, 걱정 없음, 나쁜 일이나 문제가 없는 생활, 의미 있는 타인의 존재, 자신이나 가족의 성실함과 충실한 생활태도, 순응적 가치관 등을 강조하지만 서양에서는 개인적 성향과 관련된 외향성, 낙관적 성격, 통제감, 자긍심 등을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의 근원과 주제가 서양인들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간호를 수행할 때 간호사들은 정서적인 측면을 더욱 보살펴야 할 것이며 간호대상자가 자기 수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간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Doyle (2008)[26]이 43개의 문헌을 통해서 분석한 암생존자 개념분석에서 가족과 관련된 개념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긍정적인 측면의 속성에 포함되어 있는 ‘삶에 대한 감사(appreciation of life)’는 살아남은 것을 행운으로 여기며 삶에 감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삶의 위기 수용’과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Doyle의 ‘삶에 대한 감사(appreciation of life)’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아 있는 것 자체를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전쟁이나 자연 재해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

과 같은 생존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살아남게 됨으로써 주어진 삶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한국 암생존자의 경우에는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만 오히려 살아서 누리게 되는 것들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소중하게 생각한다. 죽음을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혹은 암과 함께하는 삶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힘든 역경을 딛고 살아남은 서양의 정서와 힘든 상황 자체를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한국적 정서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또 하나 Doyle의 긍정적 속성 중에서 ‘사람과 신과의 관계 향상(improvement in relationship with people and God)’은 본 연구의 속성 중 하나인 ‘관계형성’과 ‘주관적 경험’ 그리고 결과로써 나타나는 ‘내면의 힘 증가’와 유사한 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이 겪은 경험들을 나누며 봉사하려는 이타심으로 나타나는 ‘관계 형성’에서 볼 수 있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찾고 대인관계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주관적 경험’과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삶을 넓고 여유있게 받아들이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내면의 힘 증가’에서도 사람과 신과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가 향상되는 것을 넘어서 이타심으로 승화되며, 영적인 기도가 마음의 평정을 갖게 해주고 내면의 힘을 증가시켜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료 환자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형성하는 것도 한국 암생존자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간호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질병의 장기화는 암생존자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은 암생존자에게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도덕적 성취감과 ‘우리’라는 함께하는 삶을 통해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게 하고, 이는 결국 새로운 삶 속에서 자아실현의 통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 암생존자의 장기화된 질병 과정은 삶의 변화와 적응을 필요로 한다[27]. 또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죽음의 두려움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더 삶에 대한 자세는 진지할 수밖에 없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을 찾는 것인지도 모른다. 본 연구가 암생존자뿐만 아니라 암환자들의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념분석 결과

를 토대로 암생존자의 행복감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뿐만 아니라 간호 실무에서도 행복감의 측정에 초점을 두는 간호방법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5. 결 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인 암의 진단, 치료, 추후관리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행복감을 개념 분석함으로써 암생존자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계적 사정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암생존자의 암 진단에서부터 추후관리까지 연계되는 정부차원의 통합적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신체적 증상 위주의 치료나 간호에서 지적, 정신적, 심리정서적인 측면과 복지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 융합간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 복지,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리는 암생존자가 살아가는 동안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을 제언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1] Y. A. Kang. (2015). The Conditions of Happiness: Thinking on Happiness with Emmanuel Levinas. *Research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y*, 66, 1-25
- [2] M. R. Yun, M. S. Song (2013). A Qualitative Study on Breast Cancer Survivor's Experiences. *Perspective in Nursing Science*, 10(1), 41-51.
- [3] B. S. Hong. (2012). Humanistic reflection about happiness.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7, 6-34.
- [4] Costa, P. T. & McCrae, R. R. (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4), 668.
- [5]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Oxford, England: Aldine.
- [6]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7]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 [8]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5, 137-155.
- [9] Yun M. R., Song M. S.(2013). A qualitative study on breast cancer survivors' experienc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0(1), 41-51.
- [10] Lyubomirsky S, Tkach C, DiMatteo MR. (2006).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happiness and self-esteem. *Social Indicators Research*, 78(3), 363-404.
- [11] S, H. Kim. (2010). Understanding Cancer Survivorship and Its New Perspectives. *Asian Oncology Nursing*, 10(1), 19-29.
- [12] H. S. Byun, H. J. Park, J. Y. Kim. (2012). A Conceptual Analysis of Cancer Survivorship. *Asian Oncology Nursing*, 12(3), 237-245.
- [13] B. H. Seong & S. A. Yoon. (2010). Definition of happiness and its determinants. *Journal of Brain Education*. 9(6), 103-134.
- [14]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 [15] Ryff, C.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16] J. H. Park, D. w. Shin(2012). One Million Cancer Survivors, Health Care of Cancer Survivors. *Health Policy Forum* 10(4), 66-72.
- [17] Walker L, Avant K. (2005).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4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ublishing.
- [18] Rodgers, B. L., Knafelz, K. A. (2000). *Concept development in nursing: Foundation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Philadelphia : U. S. Publishing.
- [19] D. G. Gwon. (2016). *Cancer is a gift that made us realize the importance of life [Internet]*. Gyeonggi: A Monthly Cancer; 2016[cited 2016 August 17]. Available from: <http://www.cancerline.co.kr/html/15355.html>.
- [20] Dolan P, White M. P.(2007). How can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be used to inform public polic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2(1), 71-85.
- [21] Diener E., Lucas R. E., Oishi S., Suh E. M.(2002) Looking up and looking down: Weighting good and bad information in life satisfaction judgm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4), 437-45.
- [22] K. J Hyun. (2004). An exploratory study of sources and themes of happiness among Koreans: a longitudinal approach. *Mental Health & Social Work*. 18, 60-100.

- [23] M. H. Lee. (2013) A reconstruction for the family-related analytical concept, from the familism to the family-centrism. *Jou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28, 359-393. DOI :10.17207/jstc.2013.11.28.359
- [24] Goodwin, P. J. (2005). Support groups in advanced breast cancer. *Cancer*, 1(104, 11 Suppl), 2596-2601. DOI : org/10.1002/cncr.21245
- [25] S. M. Lew.(2009). The corelation between the recent happiness phenomenon in Korea society and the concept of happiness in East Asian thought. *Social Theory*. 15, 267-95.
- [26] Doyle N. (2008). Cancer survivorship: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 62(4), 499-509.
- [27] H. K. Kang. (2017). Convergence Factors to Posttraumatic Growth in Female Urogenital Neoplasm Survivo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DOI : 10.15207/JKCS.2017.8.10.115.

조 혜 경(Cho, HyeKyung) [평생회원]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6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호스피스, 인간관계

▪ E-Mail : hkcho43@hanmail.net

송 미 순(Song MiSoon) [정회원]



- 2014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8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공주여자고등학교 보건교사, 충남대학교 시간강사

▪ 관심분야 : 행복, 치매, 삶의 질 등

▪ E-Mail : trsong@hanmail.net